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 나타난 꿈과 대칭적 세계관

권애자*

|| 차례 ||

- I. 문제제기
- II. 꿈의 구현양상
- III. 구현양상별 대칭적 세계관
- IV. 대칭적 세계관을 통해 본 전승자 의식
- V. 결론

【국문초록】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꿈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선녀와 나무꾼은 각기 꿈을 꾸고, 그 꿈속에는 초월적 예언이 들어 있다. 초월적 예언은 대칭적 세계관과 관련이 깊다. 대칭적 세계관이란 주체와 객체가 독자성을 지니되 대등하면서도 내밀하다고 여기는 문화적 시각으로서, 신화시대로부터 여러 문학 장르에 걸쳐 전승되어 오고 있다. 물론, 대칭적 세계관이 반영된 양상은 일정하지 않다.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한 가지는 대칭적 세계관이 완전하게 반영된 경우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대칭적 세계관이 불완전하게 반영된 경우이다. 대칭적 세계관이 두 가지로 대별되는 원인은 욕망에서 기인한다. 욕망에는 한 쪽만 이익이 되는 편리공생과 양쪽 다 이익이 되는 상리공생이 있다. 편리공생과 상리공생에 따라서 대칭적 세계관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각기 신화적 성격, 전설적 성격, 민담적 성격을 지닌다. 꿈속에 대칭적 세계관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여러 갈래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선녀와 나무꾼〉설화의 꿈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영남대학교 한국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제어 : 꿈, 대칭적 세계관, 욕망, 상리공생, 편리공생, 갈래

I. 문제제기

<선녀와 나무꾼>¹⁾설화는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왔다. 남녀노소는 물론 계층을 불문하고 향유했기 때문에, 향유층들이 두터운 편이다. 기본 내용은 누구나 알다시피 단순하다. ‘착한 나무꾼이 사슴의 목숨을 구해주어서, 그 보답으로 선녀와 결혼하고 하늘에까지 올라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물론 기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 내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기본 내용에다 특정 모티프가 탈락되거나 하나 둘씩 누적되면서 외연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특정 모티프가 탈락되거나 누적되는 각편이 많기 때문에, 전승력도 강하고 전승자간에 논란을 다양하게 벌였을 가능성도 많다.

지금까지 <선녀와 나무꾼>설화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의들이 있었다. 여러 논자들이 나름대로의 논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각 논의들이 일정한 의의를 확보하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논자들이 꿈 모티프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²⁾ 물론, 꿈 모티프에 대한 연구가 소극적인 데

1) 여러 명칭이 있기는 하지만, 필자는 <선녀와 나무꾼>을 대표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구연자들이 채록현장에서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명칭의 빈도수가 높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2) 꿈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꿈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한 논자를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설화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1), pp.33-43.; 전서희,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8), p.23.;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의 인물갈등 연구』,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p.15.; 양향숙, 『<나무꾼과 선녀>설화의 교제화에 관한 연구』, (부산교대 석사학위논문, 2006), p.10.; 김환희, 『옛이야기 전승과 언어 제국주의-강제된 일본어 교육』

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자료 양의 문제가 그것이다. 기존에 채록된 여러 자료 가운데서 꿈 모티프가 나타나는 자료는 겨우 5편뿐이다.³⁾ 실제로 꿈 모티프가 담긴 설화가 적은가 하면, 그렇지 않다. 민간에서 회자되는 설화에서는 꿈 모티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자가 꿈 모티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누락시켰을 개연성이 높다. 정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꿈 모티프가 나타나는 설화를 수집하고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구연자를 찾아다니며 직접 38편을 채록했다. 채록기간은 2014. 12. 21.~2015. 2. 9.이며, 화자의 성별은 여성 25명 남성 13명이며, 직업은 다양하다. 조사 지역은 대구광역시와 경북 안동시, 충북 충주시이다. 구연자들이 <선녀와 나무꾼>으로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제목에 설화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유형⁴⁾으로 표기한다. 또한 서술의 편의상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일련번호는 설화유형에 따라서 붙인다. <선녀와 나무꾼> 설화 38편 중 8편은 꿈 모티프가 없는 자료이고, 30편은 꿈 모티프가 있는 자료이다.

이 <나무꾼과 선녀> 전승에 미친 영향, 『아동청소년문학연구』81-118, (한국아동청소년문학회, 2008), pp.96-97. ; 이미연, 『옛 이야기를 활용한 연극 만들기 연구-나무꾼과 선녀>의 실행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2), pp.92-151.

3) 필자가 설화집 수록 자료에서 확인한 꿈이 있는 자료는 5편이다. 꿈이 있는 자료집은 임석재, 『한국구전설화집-평안북도 편 I』, (평민사, 1993, pp.57-58. 1934. 7월 의주군 가산면 옥강동, 김성순.),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연구』, (집문당, 1993, pp.374-376.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강동 아파트 경로당 91.8.8 배원룡, 김현숙 조사. 장연선(여, 71세) 경북 문경군 호계면 견타리.), 배원룡, 앞의 글, (pp.358-361. 대구 향교 사무실 91.8.14. 배원룡, 배영옥 조사. 서영하(남, 64세) 대구시 서구 상리동 177.), 최웅외 2인, 『강원설화총람 III, 원주시·태백시·횡성군』, ((주)북스힐, 2006, pp.418-420. 박부성(73, 남) 태백시 구문소동 2002. 8. 28.)

4) 기존 연구에 의거할 때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그 유형이 여섯 가지이다. 선녀 승천형, 나무꾼 승천형, 나무꾼 천상 시련 극복형, 나무꾼 지상화귀형, 나무꾼 시신승천형, 나무꾼 선녀 동반하강형이 그것이다. 이들 유형의 명칭을 참고하고자 한다. 배원룡, 앞의 글, pp.27-29.

30편을 보면, 꿈에는 화자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양한 제재를 통해 표출되고 있었다. 크게 보아 꿈속에는 세 가지 사건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나무꾼과 사슴, 노루, 토끼, 산신령, 죽은 엄마 등이 서로 대화하는 사건, 선녀와 나무꾼이 결합하는 사건, 천상계와 지상계가 교섭을 하는 사건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예언의 수단을 통해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궁극적으로 지상과 천상을 아우르는 우주론적 시각을 지향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우주적 시각에서 인간과 동식물이 대화하고 교감하는 현상을 ‘대칭적 세계관’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므로⁵⁾ 수집한 자료와 그 전승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꿈 모티프가 <선녀와 나무꾼>설화의 핵심 요소이고, 설화의 전승자들은 대개 대칭적 세계관을 지녔으리라고 하는 점이 그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논점을 가지고 <선녀와 나무꾼>에 나타난 꿈과 대칭적 세계관을 탐색하려 한다. 꿈은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서 당연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 꿈은 그 자체로 주목되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탐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본다. 첫째, 꿈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구현되는 지를 파악하고, 구현된 꿈이 현실과는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인물들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대칭적 세계관의 기준에 입각해서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 유형별로 나타난 인물들의 욕망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더 나아가 꿈은 어떤 작용을 하는 지도 파악한다. 셋째, 전승자들은 대칭적 세계관을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수용하지 않는 지를 파악해 본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전개해 본다.⁶⁾

5) 대칭적 세계관의 이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신태수, 『대칭적 세계관의 서사 전통과 초기고소설의 방향』, 『어문학』95, 한국어문학회, 2007, pp.377-380. 참고.

6) 필자가 조사한 설화 38편의 분량이 너무 많아 논문 말미의 부록에 전체 목록과 대표 설화작품 2편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꿈의 구현양상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나무꾼은 세상과 격리되어 있고 편모슬하이면서 한미한 노총각이다. 신분이나 계층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나무꾼의 신분으로서는 배우자를 구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현실에서와 달리 꿈은 차별과 분별이 없기 때문에, 한미한 나무꾼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다. 꿈에 나무꾼은 동물로부터 결혼할 정보를 얻어서 현실에서 선녀와 결혼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만약에 나무꾼이 꿈속에서 선녀 등장 모티프의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선녀와의 결혼은 없었을 것이다. 꿈이 있으므로 해서 앞 사건과 뒤 사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 앞 사건과 뒤 사건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기 때문에 꿈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필자가 조사한 자료 38편 중 꿈 모티프가 있는 자료가 30편이나 되는 점도 그러하다. 꿈에 대한 논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꿈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꿈속의 내용을 보면 선녀와 나무꾼의 꿈이 서로 다르다. 선녀가 날개옷을 입는 꿈, 나무꾼이 슬퍼하는 꿈, 지상에서 어떤 남자를 섬기는 꿈, 맑은 계곡물에 비친 남자를 보는 꿈, 언니들을 보는 꿈과 나무꾼이 천도복숭아를 따는 꿈, 선녀와 결혼하는 꿈, 빛줄기가 하늘과 연못을 잇는 꿈이 그러하다. 한편 나무꾼이 이물들로부터 색시를 얻는 방법을 듣는 꿈, 이물들로부터 두레박과 박 씨앗을 이용하여 승천하는 방법을 듣는 꿈, 선녀가 하늘에서 승천하라고 말한 꿈이 그러하다. 꿈과 현실의 거리는 매우 가깝다. 즉, 선녀와 나무꾼이 꾸 꿈속의 내용들은 현실에서 실현된다. 꿈속의 내용이 현실에서 실현된다고 볼 때, ‘행위’로써 미래를 예측하게 하면 암시라고 ‘말’로써 미래를 또렷하게 알려주면 명시라 할 수 있다. 암시와 명시의 기능을 예언⁷⁾이라 한다.

예언의 기능인 암시와 명시는 여럿이지만, 크게 보아 세 가지다. 암시만 하는 경우와 암시와 명시를 모두 하는 경우와 명시만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암시만 하는 경우는 인물이 행운을 얻게 하는 기능을 하고, 암시와 명시가 있는 작품들은 인물에 따라서 좋은 일이 예견되어 행운을 얻거나 그렇지 못한 기능을 하고, 명시만 있는 작품들 또한 바로 앞의 의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점이 그러하다. 작품 편수로는 암시는 3편이고, 암시+명시는 5편이고, 명시는 22편⁸⁾이다. 이를 볼 때, 암시보다는 명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암시⁹⁾는 선녀 아니면 나무꾼이 꾸는 꿈이고, 명시는 주로 나무꾼이 꾸는 꿈이다. 선녀와 나무꾼이 꾸는 꿈속에는 초월적인 예언이 구현되는데 주로 인간과 이물의 교섭, 천녀와 지남의 교섭,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이 나타난다. 이러한 꿈속의 내용이 현실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첫째, 꿈속의 내용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진다. 자료는 7편¹⁰⁾이다. 이 유형은 주로 나무꾼의 예언이다. 나무꾼은 꿈속에서 이물들과의 교섭이 이루어

7) 이강옥은 <구운몽>에서 꿈은 예언적 작용을 통하여 등장인물에게 절망을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한다고 하고, 예언을 암시와 명시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서는 예언적 꿈이 등장인물에게 희망을 일차적으로 실현시켜주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강옥, 『야담의 꿈에 나타난 욕망의 실현과 반조』, 『한국문학논총』 제65집, 한국문학회, 2013, pp.64-67. 참고.

8) 1), 암시만 있는 작품들-7(박영란), 37(김영이), 38(안창덕). 2), 암시와 예언이 있는 작품들-11(허재운), 12(갈진영), 18(황명희), 21(김정수), 32(김진성). 3), 예언만 있는 작품들-1(남해경), 2(김태희), 4(이홍규), 6(김수연), 8(김영미), 9(이필운), 10(이분신), 13(김경숙), 14(정미숙), 15(반하정), 16(김명숙), 17(곽미숙), 19(나인숙), 22(권재석), 23(고정조), 25(신전리), 29(김진태), 31(권진혜), 33(김종태), 34(이기웅), 35(김은진), 36(이수미).

9) 꿈에 암시를 나타내는 자료 중 천녀와 지남의 교섭은 11(허재운), 12(갈진영), 21(김정수)의 자료이고, 꿈에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은 37(김영이), 18(황명희)의 자료이다.

10) 부록에 제시되어 있으며, 자료는 1, 2, 4, 6, 7, 8, 9이다.

어진다. 사슴과 토끼¹¹⁾는 아내를 얻을 수 있는 명시를 주고, 산신령은 사슴을 구해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명시를 준 예언이 그러하다. 작품에 따라서 천도복숭이를 따는 꿈으로 좋은 일을 암시하는 예언도 있다. 나무꾼의 예언은 명시와 암시로 구현되어 있다. 나무꾼이 구현한 꿈속의 명시든 암시든 간에, 천상계를 원하면 선녀와 천상계에서 지상계를 원하면 선녀와 지상계에서 행복하게 잘 산다. 꿈속의 예언이 천상계에서 실현되면 우주론적인 시각이 강하고, 꿈속의 예언이 지상계에서 실현되면 우주론적인 시각이 덜 강하다. 하지만 한미한 나무꾼이 천상계와 지상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우주론적인 시각이 전제된다고 볼 때, 나무꾼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현실을 극복한다.

나무꾼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두레박과 박 씨앗¹²⁾을 활용한다. 두레박은 물을 퍼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 박 씨앗은 땅에 심어서 자란 박을 먹는 식용이다. 도구와 식용으로만 사용하는 두 사물이 나무꾼을 천상계로 승천시킬 만큼 초자연적인 성격을 발휘한다. 두레박과 박 씨앗이 초자연적 성격을 발휘한다고 볼 때, 나무꾼이 두레박이나 박 넝쿨을 타고 천상계로 승천한다는 말이 가능해진다. 나무꾼의 탁월한 능력은 꿈을 꿈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현실에서도 인식한다는 점이다. 즉, 현실에서의 꿈이 어긋나지 않고 ‘화합’하려면 나무꾼의 탁월한 능력이 발휘되어야만 가능하다. 나무꾼의 탁월한 능력의 기저에는 초자연적인 성격이 깔려있으며, 그

11) 나무꾼이 사냥꾼/포수로부터 숨겨주는 사건에서 등장하는 동물은 ‘사슴, 노루, 고라니, 호랑이, 토끼, 멧돼지’ 라고 하지만, 필자가 채록한 자료는 ‘사슴, 토끼’가 등장한다. 배원룡, 앞의 글, p.54.

12) 신태수는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신화적 성격』(『어문학』제89집, 한국어문학회, 2005, p.162.)에서 두레박을 단순한 도구로만 보지 않고 천상계와 지상계의 보완 기능을 드러내는 상징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두레박과 함께 박 씨앗을 초자연적 성격을 띤 사물이라 생각한다.

초자연적인 성격은 선녀와 화합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향한다.

둘째, 꿈속의 내용이 현실에서는 어긋난다. 자료는 15편¹³⁾이다. 이 유형은 선녀와 나무꾼의 예언이다. 선녀는 하늘에서 지상의 사람을 섬기는 암시를 예언하고, 나무꾼은 이물들에게 아내를 얻거나 선녀가 하늘에서 무시당한다면서 나무꾼에게 승천하기를 바라는 명시와 선녀와 결혼하는 암시를 예언하는 점이 그러하다. 선녀의 암시로 구현하든 나무꾼의 명시와 암시로 구현하든 간에 하나로 종합해 보면, 인간세계의 조건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나무꾼이 자리하고 있다. 인간세계의 조건이 강한 만큼 우주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현실적인 시각이 강하게 반영된 만큼, 나무꾼이 선녀와 결합하려는 예언이 강하게 표출한다 해도 ‘현실의 장벽’은 뛰어넘을 수가 없다.

나무꾼이 강한 예언을 표출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장벽을 극복할 수는 없다. 아이를 세 명¹⁴⁾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기가 그것이다. 금기는 나무꾼에게 큰 장벽이다. 나무꾼의 장벽은 금기에서 기인한다. 나무꾼이 금기를 어기는 바람에 선녀는 떠나야 했고, 또 금기를 어기는 바람에 선녀는 영원히 돌아선 점이 그러하다. 나무꾼은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왜 선녀를 떠나보내야 했고, 자신한테서 영원히 돌아서게 했을까. 효자라는 굴레와 한미한 신분일 터이다. 나무꾼의 한미한 신분 때문에 선녀와 결혼을 해도 파탄이 오고, 처자들은 무시당하고, 대접도 잘 못 받게 된다. 한미한 신분에다가 효자라는 굴레는 더 큰 현실의 장벽이 된다. 한미한 신분과 효자의 굴레는 나무꾼을 ‘좌절’하게 하는 현실의 장벽이다.

셋째, 꿈속의 내용은 현실에서 무조건 이루어진다. 자료는 8편¹⁵⁾이다.

13) 부록에 제시되어 있으며, 자료는 10~19, 21, 22, 23, 25, 29이다.

14) 나무꾼이 날개옷을 주어도 되는 아이의 수는 체록한 자료 38편 중 세 명은 26편, 네 명은 4편, 기타는 8편이다. 이 중에 편수가 가장 많은 세 명을 선택한다.

이 유형은 선녀와 나무꾼의 예언이다. 첫째의 경우와 달리 선녀와 나무꾼의 예언이 다채롭다. 선녀는 나무꾼이 밥도 먹지 않고 슬피하는 암시와 선머슴처럼 행동도 거칠고 여성답지 못한다고 한 명시의 예언이 그러하다. 나무꾼이 동물의 도움을 받는 명시이거나, 산신령으로부터 금도끼 은도끼를 상으로 받는 명시이거나, 제일 큰 나무를 베어오게 하는 명시이거나, 앞개울에 천생배필이 있다고 한 명시의 예언과 노란 황금덩어리가 머리 위에 떨어지는 암시의 예언이 그러하다. 선녀와 나무꾼의 암시 아니면 명시의 예언은 하나같이 배우자와 결합하려는 의지가 전제되어 있다. 주로 나무꾼이 중심자리에 놓이지만 작품에 따라서는 선녀도 중심자리에 놓일 때가 있다. 나무꾼과 선녀가 중심자리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상황은 결국에는 ‘결합의 의지’일 터이다.

결합의 의지는 선녀보다 나무꾼이 더 강하다. 키가 엄청 크고 코는 앞산만한 여인¹⁵⁾을 천생배필로 얻고, 선녀가 밭을 헐다며 승전을 못하게 하고, 생쥐가 날개옷을 값아 먹도록 한 점이 그러하다. 나무꾼은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자를 취하려 한다. 반면에 하늘에서 지상의 남편을 걱정만 하고, 나무꾼을 가구기술자를 만들어 벼슬을 받게 하고, 집안 보다는 자기만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한 점이 그러하다. 나무꾼과 선녀의 행위를 보면 차원이 있다. 나무꾼은 단순히 배우자와의 결합이 주목적인 차원이고, 선녀는 배우자와 결합을 하더라도 더 나은 삶이 주목적인 차원이다. 결합하려는 차원에도 층위가 있다고 볼 때, 나무꾼이 원하는 층위가 일차원이라면 선녀가 원하는 층위는 이차원이라 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나무꾼과 선녀는 배우자

15) 부록에 제시되어 있으며, 자료는 31~38이다.

16) 김대숙은 일반적인 선녀의 형상을 아름다운 여자, 나무꾼이 만나고 싶은 이상적 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민담적 성격과 주제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137, 국어국문학회, 2004, p.342. 참고.

의 선택에 있어서 의식은 다르지만 그 꿈을 ‘성취’하려는 의도는 같다.

갈래	꿈의 구현양상	꿈의 동인
A : 꿈 → 현실 = 화합	인간과 이물의 교섭	탁월한 능력
B : 꿈 → 현실 ≠ 좌절	인간과 이물의 교섭, 인간과 이물 그리고천녀와 지남의 교섭 아니면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	현실의 장벽
C : 꿈 → 현실 = 성취	인간과 이물의 교섭, 인간과 이물 그리고천녀와 지남의 교섭 아니면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	결합의 의지

꿈이 현실과 맺는 세 가지의 양상은 결국 꿈의 방향이 세 갈래임을 의미한다. 꿈의 방향에 결정적인 요건은 상대항의 세 쌍이다. 즉 인간과 이물, 천녀와 지남, 천상계와 지상계가 갈래의 기준이 된다. A는 꿈의 내용이 현실과 서로 화합하는 방향이다. 화합하는 방향에는 세 쌍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자는 인간과 이물의 교섭이고, 후자는 세 쌍의 교섭이 나타나지 않는다.¹⁷⁾ B와 C는 꿈의 내용이 현실에서 좌절하는 방향과 꿈의 내용이 현실에서 무조건 성취하는 방향이다. 좌절하는 방향과 성취하는 방향은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세 쌍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자는 인간과 이물의 교섭이고, 후자는 전자에다가 천녀와 지남의 교섭 아니면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이다. 꿈의 동인을 A, B, C 순서대로 정리하면 ‘탁월한 능력, 현실의 장벽, 결합의 의지’로 드러난다. A~C는 상대항 세 쌍이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상대항 세 쌍이 반영한 결과에 따라 꿈의 모양이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상대항 세 쌍이 그대로 반영되면 화합의 성격이 드러나고, 상대항 세 쌍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좌절의 성격과 성취의 성격이 드러난다. 상대항 세 쌍으로 인해 표출된 화합의 성격이든, 좌절의 성격이든, 성취의

17) 선녀와 사물, 나무꾼과 사물의 교섭은 나타나지만, 주요 세 쌍의 교섭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킨다.

성격이든 간에 모두 전승자 의식에서 나온 형상들이다. 전승자들은 세 가지의 성격을 표출하기 위해 명시와 암시의 방법으로 서술한다. 명시는 강한 욕망을 표출하고 싶거나 강한 욕망을 확장시키고 싶을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암시는 강한 욕망이지만 강한 욕망을 확장시키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한다. 꿈속에는 명시를 주로 사용하고 암시는 부차적으로 사용하는 편이다. 꿈이라는 장치 속에 전승자의 의식을 담는다고 볼 때, 꿈은 전승자의 강한 욕망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가장 본질적인 형식이다.

Ⅲ. 구현양상별 대칭적 세계관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는 인간과 이물, 천녀와 지남,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이 주로 나타난다. 엄연히 서로 다른 영역의 주체와 객체가 교섭하기 때문에 <선녀와 나무꾼>의 전승자는 주체와 객체가 독자성을 지니되 대등하면서도 내밀하다고 여기는 시각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각을 대칭적 세계관¹⁸⁾이라 지칭하므로, 필자도 이 관점을 수용하기로 한다. 대칭적 세계관은 삼라만상을 한 덩어리로 본다는 점에서 우주론적인 시각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채록한 자료 38편에는 바로 이런 대칭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물론, 대칭적 세계관이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한 가지는 대칭적 세계관이 완전하게 반영된 경우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대칭적 세계관이 불완전하게 반영된 경우이다. 자료 38편을 통해 대칭적 세계관의 반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8) 신태수, 『대칭적 세계관의 서사 전통과 초기고소설의 방향』, 『어문학』95, 한국어문학회, 2007, pp.377-380.

1. 완전하게 반영된 경우

필자가 채록한 38편 중, 대칭적 세계관이 완전하게 반영된 자료는 9편이다. 이 9편에는 인간과 이물, 천녀와 지남,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 양상이 모두 나타난다. 이런 양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까닭은 인물들의 상이한 욕망이 화합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즉, 욕망이 상호 화합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이물, 천녀와 지남,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 양상이 나타나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인물 간의 욕망이 상호 화합한다고 해도 지향성이 동일하지는 않다. 크게 보아 천상계를 지향하는 경우와 천상계와 지상계를 동등하게 지향하는 경우와 지상계를 지향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해당 작품은 각기 5편, 2편, 2편이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욕망 화합형’이라 통칭하고 순차적으로 A, B, C를 붙인 다음 논점을 심화시키기로 한다.

(표1)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욕망 화합형’ 자료들

기호	번호	제목	구연자	채록년월일	직업
A	1	나무꾼 승천담	남해경, 여, 53	2014. 7. 17	주부
	2	나무꾼 승천담	김태희, 여, 51	2014. 7. 18	주부
	3	나무꾼 승천담	장효민, 여, 27	2015. 2. 9	회사원
	4	나무꾼 승천담	이홍규, 남, 51	2014. 7. 18	회사원
	5	나무꾼 승천담	김양규, 남, 22	2014. 12. 21	대학생
B	6	나무꾼 승천담	김수연, 여, 25	2014. 7. 13	회사원
	7	나무꾼 승천담	박영란, 여, 44	2014. 7. 17	유치원교사
C	8	선녀와 나무꾼 동반하강담	김영미, 여, 50	2014. 7. 29	음악교사
	9	선녀와 나무꾼 동반하강담	이필운, 남, 51	2014. 7. 27	부동산중개사

논점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 왜 세 가지 양상만 나타나는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 설화가 천상과 지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과 이물, 천녀와 지남,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 양상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서 A, B, C가 나타날 수 있는 동인은 무엇인가? A, B, C는 욕망의 지향성이 다른 데서 생겨났으므로, A, B, C 각각을 살피면서 욕망의 지향성이 서로 어떻게 다르며 서로 다른 욕망의 지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A의 경우는 천상계에 가치관을 담고 있는 욕망이다. 천상계는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갖춘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다. 누구나 화려하고 풍요로운 세계에 살고 싶은 욕망은 다 똑같다. 선녀와 나무꾼도 그러하다. 선녀는 자식을 낳고도 승천하려고 노력하고, 나무꾼은 가정을 지키려는 일념으로 승천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승천하려는 선녀의 노력이든 가정을 지키려는 나무꾼의 의지가든, 이들이 추구하는 지향 점은 천상계이다. 천상계는 두 인물에게 피안의 세계이다. 선녀가 날개옷을 찾아 입고 승천하려고 애를 쓰는 욕망도, 나무꾼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승천하려고 애를 쓰는 욕망(자료1~5)이 그 근거이다. 두 인물의 욕망은 달라도 피안의 세계로 가고자하는 마음은 한결같다. 피안의 세계로 가려면 우주론적인 의식이 요구되고, 우주론적인 의식이 요구되는 ‘선녀와 나무꾼’은 ‘갈등에서 화합’의 욕망을 지향한다.

B의 경우는 천상계와 지상계를 동등하게 지향하는 가치관을 담고 있는 욕망이다. 천상계와 지상계를 동등하게 지향하는 욕망의 기저에는 회귀본능¹⁹⁾이 있을 터이다. 선녀가 A의 경우처럼 천상계를 고집하는 이유가 그러하듯이 나무꾼 또한 지상계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그러하다. 누구에게나 회귀본능이 있는 존재라고 볼 때, 천상계와 지상계가 동등하기를 더 갈망하는 인물은 ‘선녀보다는 나무꾼’이다. 나무꾼이 지상계로 회귀하려고 갈망하는 기저에는 어머니가 있어서이다. ‘선녀와 나무꾼’이 (시)어머니의 문제

19) 최운식, 『<나뭇꾼과 선녀> 설화의 고찰』, 『청람어문교육』1권, 청람어문교육학회, 1988, p.69.

를 두고 특단의 방법이 제시된다. 첫 번째는 매달 한 번 어머니를 뵙고 오는 방법(자료6)이고, 두 번째는 선녀가 직접 시어머니를 모시고 승천하는 방법(자료7)이 그것이다. 나무꾼의 어머니에 대한 문제는 선녀의 적극적인 배려로 해결된다. 두 인물은 (시)어머니의 문제에 대해 ‘갈등에서 화합’으로 해결하고 있다.

C의 경우는 지상계에 가치관을 담고 있는 욕망이다. 지상계가 주된 배경이라면 대칭적 세계관은 당연히 멀어진다고 보아야한다. 특히 선녀와 나무꾼이 지상계로 동반 하강하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선녀의 의사결정권 없이 옥황상제의 허락만 있으면 가능하다. 옥황상제께 말씀을 드리거나(자료8), 옥황상제께 답판 짓거나(자료9) 한 점이 그러하다. 차이점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이고(자료8), 선녀가 데리고 간 아이 둘을 찾아 가기 위해서(자료9)이다. 이 설화는 B처럼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전적으로 드러내는 데 비해, 자료 9처럼 아이를 중시하는 부분이 특이하다. 이처럼 어머니를 중시하던 아이를 중시하던 간에 ‘나무꾼’의 강한 욕망 때문이다. 나무꾼의 강한 욕망 때문에 선녀의 욕망이 약해지면서 ‘갈등에서 화합’을 지상계로 추구한다.

구현원리	가치관	욕망의 비중	결과
대칭적 세계관	A 천상계 배경	선녀 = 나무꾼	갈등 - 화합
	B 천상계와 지상계 배경	선녀 ≤ 나무꾼	갈등 - 화합
	C 지상계 배경	선녀 < 나무꾼	갈등 - 화합

A~C에서 보듯이, 구현원리의 기본은 대칭적 세계관이다. 대칭적 세계관의 구현원리는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 ‘갈등-화합’의 구조로 나타난다. ‘갈등-화합’의 구조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 A는 대칭적 세계관이 온전하게 반영되면서 천상계가 주된 가치관을 추구하고, B는 대칭적 세계관이

온전하게 반영되면서 천상계와 지상계를 주된 가치관을 추구하고, C는 대칭적 세계관이 온전하게 반영되면서 지상계가 주된 가치관을 추구하는 바가 그러하다. A, B, C 모두가 대칭적 세계관이 온전하게 반영되기는 하나 주된 가치관에 따라서 욕망의 비중이 달라진다. A는 선녀와 나무꾼의 욕망이 대등하고, B는 선녀와 나무꾼의 욕망이 같거나 나무꾼의 욕망이 강하고, C는 선녀보다 나무꾼의 욕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물 주체의 욕망이 천상계를 벗어날수록 대칭적 세계관은 약해지고, 선녀보다 나무꾼의 욕망이 더 강하다.

나무꾼의 강한 욕망은 전승자 의식에서 기인한다. 전승자들은 대칭적 세계관을 근간으로 해서 천상계를 주된 욕망, 천상계와 지상계를 주된 욕망, 지상계를 주된 욕망으로 한다. 여러 욕망을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도 하나로 묶는 역할은 다름 아닌 전승자의 몫이다. 전승자들은 여러 욕망을 담아내려고 꿈이라는 장치를 가져오기도 한다. 꿈은 결핍된 삶을 충족시키는 욕망²⁰⁾을 담아낼 그릇으로 충분하다. 전승자들은 욕망을 꿈박이든 꿈 안이든 우주론적인 시각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우주론적인 시각에 입각한 대칭적 세계관의 요소들은 전승자의 의식을 한층 강화시켜주고 있다. 강한 전승자 의식 때문에 나무꾼이 강한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나무꾼의 강한 욕망 때문에 천지간 어디에서나 화합이 가능하다.

2. 불완전하게 반영된 경우

대칭적 세계관이 불완전하게 반영된 경우는 두 가지이다. 먼저 필자가 채록한 38편 중, 21편이다. 이 21편에는 인물들의 욕망이 좌절하는 양상이

20) 이한구, 『진화론이 제기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논쟁』, 『철학과 현실』44, 철학문화연구소, 2000, pp.150-153.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인물들의 욕망이 좌절하는 까닭은 대칭적 세계관이 불완전하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불완전하다면 어떻게 불완전한지가 관건이다. 크게 보아, 인간과 이물, 천녀와 지남,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 양상이 모두 나타나되 세 가지 양상이 모두 미약한 경우²¹⁾와 인간과 이물, 천녀와 지남,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 양상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가 빠지는 경우로 대별된다. 해당 작품의 수는 각기 2편과 19편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욕망 좌절형’이라 통칭하고 순차적으로 기호 D와 E를 부여하기로 한다.

[표 2] 〈선녀와 나무꾼〉의 ‘욕망 좌절형’ 자료들

기호	자료	제목	구연자	채록년월	직업
D	10	나무꾼 승천담	허재운, 여, 39	2014. 7. 24	국악강사
	11	선녀 재하강담	이분선, 여, 51	2014. 8. 27	회사원
E	12	나무꾼 지상회귀담	갈진영, 여, 42	2014. 7. 14	강사
	13	나무꾼 지상회귀담	김경숙, 여, 46	2014. 7. 17	퀵트강사
	14	나무꾼 지상회귀담	정미숙, 여, 39	2014. 7. 18	유치원교사
	15	나무꾼 지상회귀담	반하정, 여, 50	2014. 7. 29	주부
	16	나무꾼 지상회귀담	김명숙, 여, 50	2014. 7. 29	상담사
	17	나무꾼 지상회귀담	곽미숙, 여, 60	2014. 8. 12	국어강사
	18	나무꾼 지상회귀담	황명희, 여, 51	2014. 8. 16	연구소장
	19	나무꾼 지상회귀담	나인숙, 여, 49	2014. 9. 15	논술강사
	20	나무꾼 지상회귀담	채주형, 여, 30	2014. 11. 14	주부
	21	나무꾼 지상회귀담	김정수, 남, 23	2014. 7. 13	대학생
	22	나무꾼 지상회귀담	권재석, 남, 38	2014. 7. 20	회사원
	23	나무꾼 지상회귀담	고정조, 남, 53	2014. 8. 12	내일학교교사
	24	나무꾼 지상회귀담	박재복, 남, 50	2014. 9. 1	자영업

21) 대칭적 세계관의 세 가지 조건이 다 구현되면 두 주인공이 추구하는 욕망이 화합하거나 성취하거나 하는 유형이 마땅하다. 하지만 작품 속에 ‘금강산’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되고, ‘선녀탕’과 ‘수탉’이라는 증거물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좌절의 유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25	선녀 승천담	신전리, 여, 75	2014. 7. 12	농업
26	선녀 승천담	김양지, 여, 18	2014. 12. 21	고등학생
27	선녀 승천담	유은영, 여, 44	2015. 2. 3	주부
28	선녀 승천담	이연진, 여, 26	2015. 2. 9	회사원
29	선녀 승천담	김진태, 남, 62	2014. 7. 25	스님
30	선녀 승천담	황해성, 남, 32	2014. 10. 5	공무원

D에는 자료10, 11이 속한다. 대칭적 세계관의 세 가지 조건이 붕괴되지 않으면, ‘욕망 화합형’으로 볼 수도 있다. 작품의 결미를 보면 자료 10처럼 나무꾼이 승천하여 처자와 결합을 하고, 자료 11처럼 선녀가 재하강하여 나무꾼과 결합을 한 점이 그 근거이다. 이 두 자료를 보면 나무꾼은 천상계에서 선녀는 지상계에서 결합을 한다. 지상의 나무꾼은 천상계로 천상의 선녀는 지상계로, 서로 다른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서로 다른 세계를 지향한다고 볼 때, 크게 보면 나무꾼과 선녀의 욕망은 같다. 나무꾼과 선녀는 같은 욕망을 가지지만 구체적인 갈등양상은 다르다. 나무꾼은 천상계에서 살아도 노모가 병이 깊기 때문에 크게 좌절하지만, 선녀는 지상계에서 살더라도 아버지가 옥황상제이기 때문에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니 ‘갈등에서 좌절’의 정도가 나무꾼이 선녀보다 더 강하다.

E에는 자료12~30이 속한다. 대칭적 세계관이 ‘붕괴되는 요소는 세 가지 조건 중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이다.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이 붕괴되는 이유는 인물 간의 욕망이 상호화합하지 못하고 어긋나기 때문이다. 선녀의 날개옷을 훔친 사건으로 인해 자료25~30처럼 선녀는 승천해 버리고, 자료12~24처럼 나무꾼이 어머니가 그리워 하강한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전자는 선녀가 승천하여 어긋나고, 후자는 나무꾼이 하강하여 어긋난다. 선녀와 나무꾼은 어긋날 수밖에 운명인 셈이다. 선녀의 분향이 천상이기 때문에 승천할 수밖에 없고, 나무꾼의 분향이 지상이기 때문에 하강할

수밖에 없는 듯하다. 특히 나무꾼의 지향성에 눈여겨볼만하다. 나무꾼은 지상계에 있으면 천상계를 천상계에 있으면 지상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 천상계와 지상계는 거리와 경계가 있고, 거리와 경계 때문에 나무꾼은 ‘갈등하고 좌절’한다.

구현원리	유형	욕망의 비중	결과
대칭적 세계관	D 세 가지 구현	선녀 <나무꾼	갈등 - 좌절
	E 한 가지 붕괴	선녀 <나무꾼	갈등 - 좌절

D, E의 논지를 도표로 정리해 보았다. 대칭적 세계관의 붕괴속도에 따라 욕망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볼 때, 대칭적 세계관이 적게 붕괴되면 욕망이 약해지고, 대칭적 세계관이 많이 붕괴되면 욕망이 강해진다. 즉, 대칭적 세계관과 욕망의 관계는 시소 타기와 같다. 이를 토대로 D, E의 경우를 보면 D에서 E로 이행할수록 대칭적 세계관이 점점 붕괴되므로, 욕망이 점점 강하게 나타난다. 욕망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전승자들의 의식세계에 세속적 사고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고 그 욕망의 중심에는 선녀보다 나무꾼에 두고 있다. 세속적 사고를 가진 전승자들은 설화 속에 대칭적 세계관의 조건들을 온전히 담아내기는 무리여서 행위 주체를 통해서 욕망을 표출했다고 보인다. 대칭적 세계관이 붕괴의 정도에 따라 욕망의 강도도 달라지고, 또한 ‘갈등-좌절’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칭적 세계관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해서 대칭적 세계관을 포기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대칭적 세계관의 조건들을 온전히 담아내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한 전승자들은 대칭적 세계관의 조건들을 꿈속으로 밀어 넣었을 정황으로 본다. 대칭적 세계관의 조건들이 꿈으로 처리한 경우와 대칭적 세계관의 조건들이 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눈다. 21

편의 자료 중에 전자는 11편이고 후자는 9편이다. 이 11편은 대칭적 세계관의 조건들이 일정부분 꿈으로 처리되어 욕망이 상당히 강하고, 9편은 대칭적 세계관의 조건들이 꿈으로 처리되지 않아 욕망이 상당히 약하다. [표 2]의 자료 21편을 대칭적 세계관이 꿈으로 처리된 경우와 꿈으로 처리 안된 경우를 구분하고, 기호 가), 나)를 사용한다.

가) 대칭적 세계관이 꿈으로 처리한 경우 : 자료 11~19, 21, 22, 23, 25, 29 - 15편

나) 대칭적 세계관이 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 자료 20, 24, 26, 27, 28, 30 - 6편

가)와 나)는 대칭적 세계관이 꿈으로 처리한 경우와 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이다. 가)는 꿈에 인간과 이물의 교섭이 전부 나타나고, 천녀와 지남의 교섭은 5편 아니면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이 1편 나타난다. 나)는 꿈에 대칭적 세계관이 전무하다. ‘욕망 좌절형’ 자료는 21편이고, 가)는 15편 나)는 6편이다. 15대6의 비율을 보아도 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꿈으로 처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꿈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는 대칭적 세계관이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칭적 세계관이 상당히 약화된 ‘욕망 좌절형’은 신성성이 사라지면서 신분상승의 욕구와 출세의 욕망이 강하게 나타난다. 꿈에서 깬 나무꾼이 목욕하는 여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줄 알면서도 날개옷을 훔쳐 결혼한 점이 그러하다. 나무꾼의 욕망은 인간 삶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전승자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을 수 있다. 전승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청자로부터 의심받지 않고 진실성도 입증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꿈으로 보았

을 터이다. 꿈이 욕망을 표출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볼 때, 세속적 사고를 가진 전승자들은 대칭적 세계관의 조건들을 꿈속에서 구현하고 있다. 꿈속에서는 인간과 이물의 차별이 없으며, 동질적인 위상을 부여하기 때문에 전승자의 욕망을 표출해 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꿈이 전승자의 욕망을 표출하는 데 무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승자의 욕망은 현실로 이어질 수는 없다. 전승자가 욕망을 구현하고 있는 꿈속의 공간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전승자들은 대칭적 세계관을 구현하기 위해 꿈의 공간을 차용하였지만, 꿈은 ‘욕망 좌절형’을 지닌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전승자들에게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필자가 채록한 38편 중, 대칭적 세계관이 불완전하게 반영된 또 다른 자료는 8편이다. 이 8편에는 인물들의 욕망이 성취하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인물들의 욕망이 성취하는 까닭은 대칭적 세계관이 불완전하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불완전하다면 어떻게 불완전한지가 관건이다. 크게 보아, 인간과 이물, 천녀와 지남,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 양상이 모두 나타나되 세 가지 양상이 모두 미약한 경우와 인간과 이물, 천녀와 지남,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 양상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가 빠지는 경우로 대별된다. 해당 작품의 수는 각기 6편과 2편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욕망 성취형’이라 통칭하고 순차적으로 기호 F와 G를 부여하기로 한다.

[표 3]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욕망 성취형’ 자료들

기호	자료	제목	구연자	채록년월	직업
F	31	나무꾼 승천담	권진혜, 여, 42	2014. 7. 12	주부
	32	나무꾼 승천담	김진성, 남, 52	2014. 8. 20	자영업
	33	선녀 하강담	김중태, 남, 54	2014. 8. 28	회사원
	34	선녀 하강담	이기웅, 남, 48	2014. 8. 26	자영업
	35	선녀 하강담	김은진, 여, 41	2014. 7. 17	퀵트강사

	36	선녀 재하강담	이수미, 여, 42	2014. 7. 17	공예강사
G	37	선녀 하강담	김영이, 여, 48	2014. 8. 6	회사원
	38	선녀 하강담	안창덕, 남, 60	2014. 8. 28	대표이사

F에는 자료31~36이 속한다. 대칭적 세계관인 인간과 이물, 천녀와 지남,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이 온전히 구현된다는 점은 이기심이 우주론적으로 철저히 발휘된 상태에 있다고 본다. 이기심이 철저히 발휘된 상태에 있다고 볼 때, 나무꾼은 이물로부터 결혼할 정보를 얻고, 선녀와 결혼하고, 승천해 버린 처자를 따라 천상계(자료31~32)까지 올라간다. 반면에 나무꾼은 지상계에서 선녀를 만나 잘 살거나 승천한 선녀를 하강(자료33~36)하게 한다. 전자와 후자를 확인해 보니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공통점은 ‘나무꾼’을 중심자리에 놓는데서 드러나고, 차이점은 나무꾼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강조하는 데서 드러난다.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는 천상계에서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후자는 지상계에서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를 강조한다. 이러한 의지는 ‘갈등에서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취이다.

G에는 자료37, 38이 속한다. 대칭적 세계관이 ‘훼손된 부분은 세 가지 조건 중 인간과 이물의 교섭’이다. 나무꾼이 이물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유일한 유형이다. 나무꾼은 이물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선녀와 가정을 이루고 지상계에서 행복하게 잘 산다. 선녀는 천상계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왜 지상계로 하강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선녀의 행위에서 찾아보면 가능하리라 본다. 그것은 꿈에서 본 지상의 사람을 찾으려간 점(자료37)과 행동이 모범적이지 못해 지상으로 귀양 간 점(자료38)이다. 선녀는 ‘가난하지만 솔직한 사람’이 있는 지상계로 하강을 해야 했고, ‘미천하지만 자기만 사랑한 사람’이 있는

지상계로 귀양을 가야 했다. 선녀가 굳이 지상계를 선택한 이유가 가정을 이루려는 욕망 때문이다. ‘선녀’ 또한 나무꾼 못지않게 ‘갈등을 행복’으로 성취하려는 욕망이 강하다.

구현원리	유형	욕망의 비중	결과
대칭적 세계관	F 대칭적 세계관이 온전히 구현	선녀 <나무꾼	갈등 - 행복
	G 대칭적 세계관이 훼손	선녀> 나무꾼	갈등 - 행복

F, G의 논지를 도표로 정리해 보았다. 대칭적 세계관의 구현원리에 따라서 두 갈래로 나타난다. F는 인간과 이물의 교섭, 천녀와 지남의 교섭,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이고, G는 천녀와 지남의 교섭,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이 그것이다. F처럼 대칭적 세계관의 세 가지 조건이 온전히 구현되면, 나무꾼이 중심인물에 자리한다. G처럼 대칭적 세계관의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가 구현되면, 선녀가 중심인물에 자리한다. 대칭적 세계관의 구현 조건이 다르면, 중심인물도 다르게 나타나고 그에 준하는 욕망 또한 강도가 다르다. 비록 중심인물과 욕망의 강도는 다르지만, 선녀와 나무꾼은 가정을 이루고자하는 갈등상태를 행복상태로 전환시키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그러한 의지의 결과가 ‘갈등-행복’의 구조로 형성되었으리라 본다. ‘갈등-행복’이 나타난 기저에는 ‘날개옷 훔치기’가 깔려있다.

날개옷 훔치기는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핵심화소이다. 화소는 삽화를 만드는 가장 작은 단위의 의미단락이고²²⁾, 특이하고 인상적인 내용으로 전승자들이 쉽게 기억될 수 있다.²³⁾ 전승자들이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서 쉽게 기억하는 날개옷 훔치기 화소는 어느 각편에서든 골고루 들어 있

22) 최철·박태상, 『국문학개론』, 방송대출판부, 1985, pp.216-217.

23) 장덕순 외 3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06, pp.85-86.

는 편이다. 본질적으로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옷 훔치기 장면에서 욕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볼 때, 일부 유형에 따라서 욕망이 좀 약화된 측면은 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욕망이 끝까지 이 설화를 지배하고 있다. 이 설화를 지배하고 있는 욕망은 ‘갈등-행복’의 구조로 형성되어 청자들에게 한층 더 높은 흥미를 주고 있다. ‘갈등-행복’의 구조는 우주론적 측면까지 조망하고 있다고 볼 때, [표 3]은 ‘욕망 성취형’이 강한 설화라 할 수 있다.

IV. 대칭적 세계관을 통해 본 전승자 의식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대칭적 세계관으로 마무리되는 각편과 그렇지 않은 각편이 그것이다. 전자는 나무꾼이 천상계에서 처자와 행복하게 잘 산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후자는 전자의 각편에서 마무리모티프가 탈락되거나 마무리모티프가 누락되는 양상들을 보인다. 대칭적 세계관을 갖춘 각편을 기본형으로 기본형을 벗어나는 각편을 변이형으로 지칭할 때, 변이형은 기본형에 나타난 대칭적 세계관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황은 전승자의 성향이나 기호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전승자의 세계관이나 욕망으로부터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전승자들은 대칭적 세계관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언술을 표출하고 있다. 전승자들이 대칭적 세계관으로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수용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대칭적 세계관의 구현양상에 따라 욕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대칭적 세계관이 완전한 경우이고, 전승자들의 우주론적 시각이 전제되며 대상과 대상간의 동질적인 위상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욕망이 화합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둘째, 대칭적

세계관이 불안정한 경우이고, 전승자들의 세속적 인식이 강한 바로 욕망을 표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꿈’의 장치가 중요하다. 전승자들은 꿈속에 욕망을 투영시켜보지만 현실에서는 좌절하고 만다. 셋째, 대칭적 세계관이 불안정한 경우이고, 전승자들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주론적인 시각에서 구현하지만 꿈이라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더 설정하기도 한다. 꿈이 이중의 안전장치로 설정하기 때문에 둘째처럼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첫째, 둘째, 셋째를 순서대로 ‘욕망 화합형, 욕망 좌절형, 욕망 성취형’이라 지칭한다.

이렇듯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전승자들은 다양한 관점을 보여준다. 전승자들은 ‘욕망 화합형’에서는 우주론적인 시각을 전제하고, ‘욕망 좌절형’에서는 세속적 시각을 전제하고, ‘욕망 성취형’에서는 낙관적 시각을 전제한다. 이렇게 볼 때, ‘욕망 화합형’은 신화적 성격의 특징을 내포하고, ‘욕망 좌절형’은 전설적 성격의 특징을 내포하고, ‘욕망 성취형’은 민담적 성격의 특징을 내포한다. 신화적 성격, 전설적 성격, 민담적 성격²⁴⁾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세 가지 특징에는 한 가지의 기본자질이 있다. 그 기본자질이 욕망이다. 욕망이 화합으로 가든, 좌절로 가든, 성취로 가든 간에 대부분 선녀보다 나무꾼의 비중이 더 크게 서술되고 있다. 설화작품 38편 중 남성전승자 13명에 비해 여성전승자가 25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꾼의 욕망에 더 주안점을 두는 측면 또한 전승자 의식에 기인한 바이다.

필자는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나무꾼을 중심으로 선녀와의 관계를 살펴 보겠다. 논점을 다지기 위해서는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 나타난 공생²⁵⁾

24) 설화의 3분체계는 조동일의 장르론을 계기로 어느 정도 제 자리를 잡고 있으나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pp.33-36.;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p.137.;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1987, pp.13-16.

의 욕망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공생의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편리와 상리가 그것이다. 편리는 나무꾼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우이고, 상리는 나무꾼과 이물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를 말한다. 전자는 어느 한 쪽에만 이익이 되는 경우이며, 후자는 양쪽에 다 이익이 되는 경우이다. 어느 한 쪽에만 이익이든 양쪽에 다 이익이든지 간에 공생의 하위 유형인 편리와 상리의 조건을 찾아내는 데는 나무꾼과 이물의 교섭이 가장 적당하다. 나무꾼과 이물의 교섭을 근거로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결말 부분에서 편리와 상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 나타난 공생적 욕망

장르	자료	편수	상리	편리	설화의 결말
신화적 성격	1, 2, 3, 4, 5, 6, 7, 8, 9	9편	○	○	행복
전설적 성격	10, 11	2편	○	×	행복
	12~30	19편	×	×	매우 불행
민담적 성격	37, 38	2편	×	○	행복
	33, 34, 35, 36	4편	○	×	행복
	31, 32	2편	○	○	매우 행복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 나타난 공생적 욕망의 38편 중, 신화적 성격이 9편이고 전설적 성격이 21편이고 민담적 성격이 8편이다. 이 설화들은 전승자 의식에 따라 편리와 상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화적 성격에는 한 가지만 나타나는데, 상리도 있고 편리도 있으면 행복하다. 전설적 성격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며, 상리는 있고 편리가 없으면 행복하고, 상리

25) 공생은 서로 다른 종이 물리적으로 접촉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며, 서로 다른 종이 한 쪽에만 이익이 되면 편리공생이고 서로 다른 종이 양쪽 다 이익이 되면 상리공생이라 한다. 린 마리굴리스, 이한음 옮김, 『공생자 형성』, 사이언스북스, 2007, pp.21-33.

도 없고 편리도 없으면 매우불행하다. 민담적 성격에는 세 가지가 나타나며, 상리는 없고 편리가 있으면 행복하고, 상리만 있고 편리가 없어도 행복하고, 상리도 있고 편리도 있으면 매우행복한 점이 그러하다.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전승자들은 모두 행·불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불행은 인물 주체의 강한 이기적 욕망에서 찾아야할 듯싶다. 이기적 욕망은 다분히 나무꾼과 이물의 교섭에서 근거한다. 이러한 근거로 신화적 성격, 전설적 성격, 민담적 성격의 전승자들은 이기적 욕망을 인물 주체에 어떻게 투영시키는지를 점검해본다.

신화적 성격은 전승자의 우주론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나무꾼의 이기적인 욕망을 찾아본다. 신화적 의식을 가진 전승자는 우주론적인 시각에서 화합을 전제하기 때문에, 자이는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존재이다. 나무꾼의 존재가 그러하다. 그렇다면 나무꾼의 태도에 주안점을 두고 이기적 욕망을 살펴본다. 나무꾼은 이물과 별개가 아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관계이다. 공생관계의 대상은 주로 사슴이 등장한다. 나무꾼은 사슴과 두 차례의 교섭을 가진다. 나무꾼은 사슴의 목숨을 살려주고 사슴은 나무꾼에게 배우자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또한 승천한 처자식과 상봉하기위해 나무꾼은 사슴의 도움을 받는다. 전자는 사슴과 나무꾼에게 다 이익이 되는 상리가 되고, 후자는 나무꾼만 사슴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편리가 된다. 상리도 있고 편리도 있으면, 천상계든 지상계든 다 행복하다.

전설적 성격은 전승자의 세속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나무꾼의 이기적인 욕망을 찾아본다. 전승자들의 세속적 시각에서는 경험적인 논리의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다. 경험적인 논리와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승자들은 꿈이라는 장치를 내세워 욕망을 구현한다. 전승자들은 꿈속에 노루, 사슴, 산신령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산신령도 나무꾼과 공생관계라 할 수 있다. 전설적 성격은 결말에서 역으로 추론하여 이기적 욕망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선녀가 자식과 승천했다가 지상계로 다시 하강하고 나무꾼은 처자와 만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점은, 나무꾼과 노루의 교섭 때문이다. 선녀가 자식과 승천해 버리거나, 어머니의 걱정으로 하강하여 승천하지 못해 천상계를 그리워하거나 하는 사건들은 모두 나무꾼과 이물의 교섭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자는 상리만 있고 편리는 없어도 행복하고, 후자는 상리도 없고 편리도 없어서 매우불행하다. 나무꾼의 비극적인 운명을 여실히 보여주는 후자가 전설적 성격을 특히 잘 드러내주고 있다.

민담적 성격은 전승자의 낙관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선녀와 나무꾼의 이기적 욕망을 찾아본다. 낙관적인 시각에 입각한 전승자들은 사슴, 생쥐, 산신령, 죽은 엄마 등의 공생관계를 활용한다. 이러한 이물들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 선녀와 나무꾼의 태도에서 이기적 욕망을 찾아본다. 먼저 선녀의 태도에서 보면, 지상계로 귀양을 가서 자기만 사랑한 남자와 결혼하여 잘 살거나 지상의 남자를 섬기고 싶어 옥구슬을 가지고 하강하여 시어머니 모시고 잘 사는 점이 그러하다. 다음 나무꾼의 태도에서 보면, 산신령의 교섭으로 천상계에서 잘 사는 점이 그러하다. 그다음도 나무꾼의 태도에서 보면, 사슴, 생쥐, 죽은 엄마의 교섭으로 지상계에서 잘 사는 점이 그러하다. 선녀의 태도에서 보면, 이물의 교섭이 없는 관계로 상리는 없고 편리만 있어도 행복하다. 반면에 나무꾼의 태도를 보면, 다양한 이물의 교섭이 나타나며, 상리만 있고 편리는 없는 태도 행복하고, 상리도 있고 편리도 있어서 매우행복하다.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 나타난 공생의 욕망은 그 빈도수가 다양하다. 신화적 성격은 상리도 있고 편리도 있는 편수가 9/9(100%)이다. 전설적 성격은 상리는 있고 편리는 없는 편수가 2/21(9.5%)이고, 상리도 없고 편리도 없는 편수가 19/21(90.5%)이다. 민담적 성격은 상리는 없고 편리만 있는 편수가 2/8(25%)이고, 상리만 있고 편리는 없는 편수가 4/8(50%)이

고, 상리도 있고 편리도 있는 편수가 2/8(25%)가 그것이다. 이 세 갈래의 빈도수를 열거해 보니 매우 낮은 편수, 중간편수, 매우 높은 편수가 있다. 빈도수가 매우 낮은 편수는 전승자들의 보편적인 의식에서 벗어난다고 볼 때, 주된 편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술의 중심에서 제외시키려한다. 서술의 중심 편수로는 신화적 성격의 9/9(100%)편과 전설적 성격의 19/21(90.5%)편과 민담적 성격의 4/8(50%)편이 그것이다. 이 세 갈래는 전승자의 보편적인 의식을 가진다고 볼 때, 각 유형마다 전승자들이 어떤 사고로 행·불행을 담아내는 지를 검토한다.

- A 상리공생도 하고 편리공생도 하면 행복해진다. - 신화적 성격
- B 상리공생도 하지 않고 편리공생도 하지 않으면 아주 불행해진다. - 전설적 성격
- C 상리공생은 하고 편리공생은 하지 않으면 행복해진다. - 민담적 성격

A~C는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전체를 지배하는 전승자들의 의식이다. 전승자들은 크게 두 가지 사고를 가지고 있다. 경직된 사고와 유연한 사고가 그것이다. 경직된 사고는 A와 B이다. A처럼 상대도 행복하고 자신도 행복하면 행복해진다는 점과 B처럼 상대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면 매우 불행한 점이 그러하다. 전승자들의 의식 속에는 행복을 다 추구하면 행복해지고, 행복을 다 포기하면 매우 불행해진다는 도덕적 사고가 이 유형을 지배하고 있다. 유연한 사고는 C이다. C처럼 상대는 행복하고 자신은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점이 그러하다. 전승자들의 의식 속에는 상대만 행복하면 무조건 행복해진다는 상황적 사고가 이 유형을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상리와 편리를 통해서 본, 전승자들의 의식은 일정한 형식을 중요시하면 신화적, 전설적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민담적으로 본

다. 전승자들은 신화적, 전설적, 민담적 인식을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 끌고루 담고 있다.

V. 결론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오랜 시기부터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인간과 이물이 말을 주고받고, 천녀와 지남이 결혼을 하고, 천상계와 지상계가 스스럼없이 넘나들고 한 점은 신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신화에서나 가능한 사건들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을 수 있었던 점은 꿈이라는 장치가 한몫했으리라 본다. 꿈은 현실로 오면서 전승자의 욕망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인간과 이물, 천녀와 지남, 천상계와 지상계의 세 가지 조건들이 자유자재로 구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꿈속에는 세 가지 조건을 예언의 기능으로 욕망을 표현한다. 예언의 기능으로 욕망을 표현한다고 볼 때,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꿈의 비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꿈의 비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점은, 현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꿈과 현실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꿈속의 내용이 현실에서도 잘 이루어진다는 점이 한 가지이다. 꿈속의 내용이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주론적인 시각이 전제되고, 나무꾼의 탁월한 능력이 요구되어 화합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꿈속의 내용이 현실에서 어긋난다는 점이 두 가지이다. 꿈속의 내용이 모두 인간세계의 조건이고, 보편적 인식으로는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나무꾼은 좌절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꿈속의 내용은 현실에서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점이 세 가지이다. 꿈속의 내용이 현실에서 무조건 성취하기 위해 선녀와 나무꾼의 예언이 다채롭고, 선녀와 나무꾼의 결합의지 또한 의식은 다르지만 성취하려는 의도가 같다

는 점이 그러하다. 이처럼 꿈은 현실과 다양한 형상이 나타난다. 꿈이 이 설화의 가장 본질적인 형식이라면, 꿈은 대칭적 세계관에도 영향을 준다.

대칭적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대칭적 세계관이 완전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육망 화합형’이다. 갈등-화합의 구조로써 천상계를 지향하거나, 천상계와 지상계를 동등하게 지향하거나, 지상계를 지향하거나 한다. 중심인물은 선녀와 나무꾼이고, 선녀와 나무꾼이거나 나무꾼이고, 나무꾼의 순이다. 둘째, 대칭적 세계관이 불완전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육망 좌절형’과 ‘육망 성취형’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갈등-좌절의 구조로써 천상계를 지향하거나 천상계와 지상계를 동등하게 지향한다. 중심인물은 둘 다 나무꾼이다. 후자는 갈등-성취의 구조로써 천상계와 지상계를 동등하게 지향하거나 지상계를 지향한다. 중심인물은 나무꾼, 선녀의 순이다. ‘선녀와 나무꾼’이 천상계를 지향하든 지상계를 지향하든 그 원인은 육망에서 기인한다.

육망에는 한 쪽만 이익이 되는 편리공생과 양 쪽 다 이익이 되는 상리공생이 있다. 편리공생과 상리공생에 따라서 대칭적 세계관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신화적 성격, 전설적 성격, 민담적 성격이 그것이다. 신화적 성격은 상리공생도 하고 편리공생도 하면 행복해진다. 전설적 성격은 상리공생도 하지 않고 편리공생도 하지 않으면 매우 불행해진다. 민담적 성격은 상리공생은 하고 편리공생은 하지 않으면 행복해진다. 이 세 가지 성격은 전승자의 보편적 인식에 기인한 형태이다. 전승자의 보편적 인식에 기인한 형태라고 볼 때, 전승자들의 의식 속에는 경직된 사고와 유연한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꿈속에 대칭적 세계관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여러 갈래로 내포한다는 점에서 <선녀와 나무꾼> 설화의 꿈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집-평안북도 편 I』, 평민사, 1993, pp.57-58.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연구』, 집문당, 1993, pp.356-361, pp.374-376.
최용외 2인, 『강원설화총람 III, 원주시·태백시·횡성군』, 북스힐, 2006, pp.418-420.

2. 논문 및 단행본

- 김대숙,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민담적 성격과 주제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137, 국어국문학회, 2004, p.342.
김동구,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전승 및 변이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10, pp.3-4.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pp.33-36.
김환희, 『옛이야기 전승과 언어 제국주의-강제된 일본어 교육이 <나무꾼과 선녀> 전승에 미친 영향』, 『아동청소년문학연구』81-118, 한국아동청소년문학회, 2008, pp.96-97.
린 마리굴리스, 이한음 옮김, 『공생자 행성』, 사이언스북스, 2007, pp.21-33.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설화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1, pp.33-43.
_____,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pp.14-19.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의 인물갈등 연구』,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p.15.
신태수, 『대칭적 세계관의 서사 전통과 초기고소설의 방향』, 『어문학』95, 한국어문학회, 2007, pp.377-380.
_____,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신화적 성격』, 『어문학』제89집, 한국어문학회, 2005, p.162.
양승목, 『『삼국유사』속 꿈 화소의 활용양상과 <조선>의 위상』, 『동양한문학연구』제 39집, 동양한문학회, 2014, pp.150-154.
양향숙, 『<나무꾼과 선녀>설화의 교재화에 관한 연구』, 부산교대 석사학위논문, 2006, p.10.
이한구, 『진화론이 제기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논쟁』, 『철학과 현실』44, 철학문화연구소, 2000, 150-153쪽.
이강욱, 『야담의 꿈에 나타난 욕망의 실현과 반조』, 『한국문학논총』제65집, 한국문학

회, 2013, pp.64-67.
 이미연, 『옛 이야기를 활용한 연극 만들기 연구-〈나무꾼과 선녀〉의 실행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2, pp.92-151.
 장덕순외 3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06, pp.85-86.
 전서희,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8, p.23.
 전영태, 『〈나무꾼과 선녀〉에 대한 통합적 해석』, 『선정어문』33권0호, 서울대 국어교육과, 2005, pp.226-227.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p.137.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1987, pp.13-16.
 최운식, 『〈나뭇꾼과 선녀〉 설화의 고찰』, 『청람어문교육』1권, 청람어문교육학회, 1988, p.69.
 최철·박태상, 『국문학개론』, 방송대출판부, 1985, pp.216-217.

【부록】

필자는 <선녀와 나무꾼> 설화 38편을 직접 구비조사를 했다. 설화 원문의 분량이 많은 관계로 대표 설화작품 2편만 제시하겠다. 자료의 일련번호는 본문에서 사용한 번호와 동일하다.

1. 목록

번호	제 목	채록장소	구연자	채록년월일	직업
1	나무꾼 승천담	안동	남해경, 여, 53	2014. 7. 17	주부
2	나무꾼 승천담	대구	김태희, 여, 51	2014. 7. 18	주부
3	나무꾼 승천담	대구	장효민, 여, 27	2015. 2. 9	회사원
4	나무꾼 승천담	대구	이홍규, 남, 51	2014. 7. 18	회사원
5	나무꾼 승천담	충주	김양규, 남, 22	2014. 12. 21	대학생
6	나무꾼 승천담	대구	김수연, 여, 25	2014. 7. 13	회사원
7	나무꾼 승천담	안동	박영란, 여, 44	2014. 7. 17	유치원교사
8	선녀와 나무꾼 동반하강담	대구	김영미, 여, 50	2014. 7. 29	음악교사

9	선녀와 나무꾼 동반하강담	대구	이필운, 남, 51	2014. 7. 27	부동산중개사
10	나무꾼 승천담	대구	허재운, 여, 39	2014. 7. 24	국악강사
11	선녀 재하강담	대구	이분선, 여, 51	2014. 8. 27	회사원
12	나무꾼 지상회귀담	대구	갈진영, 여, 42	2014. 7. 14	강사
13	나무꾼 지상회귀담	안동	김경숙, 여, 46	2014. 7. 17	웹트강사
14	나무꾼 지상회귀담	대구	정미숙, 여, 39	2014. 7. 18	유치원교사
15	나무꾼 지상회귀담	대구	반하정, 여, 50	2014. 7. 29	주부
16	나무꾼 지상회귀담	대구	김명숙, 여, 50	2014. 7. 29	상담사
17	나무꾼 지상회귀담	대구	곽미숙, 여, 60	2014. 8. 12	국어강사
18	나무꾼 지상회귀담	대구	황명희, 여, 51	2014. 8. 16	연구소장
19	나무꾼 지상회귀담	대구	나인숙, 여, 49	2014. 9. 15	논술강사
20	나무꾼 지상회귀담	대구	채주형, 여, 30	2014. 11. 14	주부
21	나무꾼 지상회귀담	대구	김정수, 남, 23	2014. 7. 13	대학생
22	나무꾼 지상회귀담	대구	권재석, 남, 38	2014. 7. 20	회사원
23	나무꾼 지상회귀담	대구	고정조, 남, 53	2014. 8. 12	내일학교교사
24	나무꾼 지상회귀담	대구	박재복, 남, 50	2014. 9. 1	자영업
25	선녀 승천담	대구	신전리, 여, 75	2014. 7. 12	농업
26	선녀 승천담	충주	김양지, 여, 18	2014. 12. 21	고등학생
27	선녀 승천담	대구	유은영, 여, 44	2015. 2. 3	주부
28	선녀 승천담	대구	이연진, 여, 26	2015. 2. 9	회사원
29	선녀 승천담	대구	김진태, 남, 62	2014. 7. 25	스님
30	선녀 승천담	대구	황해성, 남, 32	2014. 10. 5	공무원
31	나무꾼 승천담	대구	권진혜, 여, 42	2014. 7. 12	주부
32	나무꾼 승천담	대구	김진성, 남, 52	2014. 8. 20	자영업
33	선녀 하강담	대구	김종태, 남, 54	2014. 8. 28	회사원
34	선녀 하강담	대구	이기웅, 남, 48	2014. 8. 26	자영업
35	선녀 하강담	안동	김은진, 여, 41	2014. 7. 17	웹트강사
36	선녀 재하강담	안동	이수미, 여, 42	2014. 7. 17	공예강사
37	선녀 하강담	대구	김영이, 여, 48	2014. 8. 6	회사원
38	선녀 하강담	대구	안창덕, 남, 60	2014. 8. 28	대표이사

2. 설화 원문

4. 나무꾼 승천담

채록일 : 2014. 7. 18.

구연자 : 이홍규(남, 51세)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대실역 6편한세상

채록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 4길 9, 청운부동산

옛날에 흠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이 으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내일 사냥꾼이 사슴을 쫓고 있는 일이 으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으 자네가 나무꾼인 자네가 으 이 사슴을 구해주면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걸세.”

라고 하고 산신령이 툇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꿈에 깨었습니다.

으 진짜 이튿날 으 이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마아 학 사슴이 한 마리가 쫓아 왔습니다. 그 뒤에는 사냥꾼이 막 쫓고 있었어요. 사슴이 앞에 오며 허둥지둥 하길래 하던 으 나무를 나뭇단 속에 사슴을 훌 감추어 버렸습니다. 사냥꾼이 지나가면서 사슴이 지나가는 걸 못봤냐고 그랬어요. 방금 지나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으 나무꾼 사냥꾼들은 툇 지나가버렸어요. 그 뒤에 으 사슴이 인제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슴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으 이 나무꾼에게 이야기했어요.

“으 우리 나무꾼 아저씨 으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것 가튼데 으 내일 저녁에 어 오늘 저녁에 폭포아래 선녀들이 내려와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몰래 가서 옷 한 벌을 감추시면은 으 목욕이 끝나면 선녀가 다 올라가고 한 선녀가 남을 겁니다야. 그러면 그 선녀와 만나서 결혼하고 사십시오. 단 애 세 명 놓기 전까지는 절대 으 그 옷을 내어주지 마세요. 그할겁 으 그러면 안 좋을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선녀들이 목 폭포수 아래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옷을 사슴이 시키는 대로 옷을 한 벌 감쳤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다른 선녀들은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근데 한 선녀가 올라가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무꾼이 감춘 옷을 찾지 못해서 못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가서 옷을 돌려주고 같이 살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녀와 나무꾼은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자 몇 년이 흐르면서 옷을 두리를 넣었습니다. 두리를 넣고 그러자 그때의 선녀가 울면서 이 나무꾼에 부탁을 했습니다. 하늘로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제발 옷 좀 내어 달라고. 그러자 이 나무꾼이 마음이 아파서 참 착한 나무꾼이 옷을 내어줬습니다. 그러자 이 선녀는 그 옷을 입고 양손에 다가 아기 둘 하나씩을 메고 두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한안참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고 하자 이 나무꾼은 실의에 빠졌어요. 그 실의 빠진 중에 어느 날 밤 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산신령님이 후우 그때의 앞에 있었던 이튿날 사슴하고 이야기를 해준 그 산신산신령님이었습니다. 그 산신령님이

“하아 그렇게 보고 싶거든 널 하늘에서 뚜레박이 내려올 걸세에. 그러면 그 뚜레박을 타고 올라가서 선녀와 자식들을 만나게.”

라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자 잠에서 깬습니다.

이튿날 말 그대로 뚜레박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선녀를 만나러 뚜레박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 후로 잘 애들도 보고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런 선녀와 나무꾼이야기입니다.

27. 선녀 승천담

채록일 : 2015. 2. 9.

구연자 : 이연진(여, 26세)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서한화성 아파트

채록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서한화성 아파트

옛날에 산속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사슴이 누구 어디 쫓기는 사슴을 만났는데 사슴이 자기를 구해 달라고 해서 그 나무꾼이

구해 조였요. 글서 사슴이 인제 고맙다고 보답을 한다고 어 어디에 선녀가 있 어디
 며 호수가에 가면은 선녀들이 머 목욕을 한다야 그래서 거기서 옷을 훔쳐서 있으면
 은 그 선녀랑 결혼 할 수 있을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선녀가 나중에 아 그 선녀의
 옷을 절대로 주지 말고 애 셋 낳을 때까지진강? 보관하라고 이렇게 알려 줍니다. 그래
 서 나무꾼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호수가 같은 데로 가가주고 선녀들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사슴 말대로 그 옷을 하나 숨깁니다. 그런 다음에 어 그래
 서 선녀가 못 도망가고 어 나무꾼이랑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꾼이랑 살다가
 애를 셋 낳을 때까지 어 같이 지내는데 셋 낳고 나선강 그 나무꾼이 어 선녀가
 자기가 너무너무 한 번 만 딱 한번만 하늘나라에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으 선녀와
 그 나무꾼한테 옷을 달라고 해서 나무꾼이 또 마지못해서 그 옷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선녀가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다시는 내려오지 않고 나무꾼이 음
 나무꾼이 그냥 슬픔에 빠져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Abstract

The Aspect of Dream, the Main Motif of Folktale <Woodcutter and Nymph> and Its Symmetrical World View

Kwon, Ae-Ja

Dream is regarded as important motif in Korean folktale <Woodcutter and Nymph>. Woodcutter and nymph had their respective dream, and their dream involved transcendental prophecy. The transcendental prophecy are closely related to symmetrical world view. The symmetrical world view refers to cultural perspective that the subject and the object have independence respectively and they are equal and confidential, and it has been handed down to various literary genres since the age of the Myths. Of course, the symmetrical world view is irregularly applied to literary genres. Largely, literary works are divided into two cases. In the first case, the symmetrical world view is completely applied to literary work. In the second case, the symmetrical world view is incompletely applied to literary work. Desire is the reason why the symmetrical world view is applied to literary works as the above two cases. As for the desire, there are commensalism for the benefit of one side and mutualism for the benefit of both sides. The symmetrical world view is applied as three types like mythical featured type, legendary featured type, folktale featured type according to commensalism or mutualism. The symmetrical world view is applied as various types and has significance in various parts in the dream of woodcutter and nymph, thus this study can not help paying attention to the dream in folktale <Woodcutter and Nymph>.

Key Word : dream, symmetrical world view, desire, mutualism, commensalism, part

권애자

소속 : 영남대학교 한국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자우편 : ajkwan0703@hanmail.net

이 논문은 2016년 2월 26일 투고되어
2016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4월 16일 게재 확정됨.